



이 연 속
한국노년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노인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몇 해 전 학생들을 데리고 외국의 새로운 주거환경개발사례를 현장 견학 하고자 덴마크에 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반바지 차림에 큰 빗자루로 동네의 길을 따라 길가 낙엽을 열심히 쓸고 있는 한 여성을 보게 되었다. 여러 집 앞을 다니며 쓸어주는 그 여성이 선한 이웃집 아줌마인지, 아니면 그 동네 미화원인지 호기심이 나서 말을 걸었다. 자기 집 앞을 청소하고 그 옆집 그리고 동네의 길을 시간되는 만큼 청소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듯 이야기 했다. 이렇게 동네 길을 조용히 혼자서 쓸고 있는 거라면 바쁜 직장인이라면 업무도 못할 일이니, 시간적 여유가 많은 주부일거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 직업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레 물었다. 예기치 않게도 그 여성은 27년간 국회의원과 장관을 계속 지냈고 올해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안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UN 관련 여러 직책을 맡아 더 바쁘게 보내고 있다며 살짝 미소를 띠었다. 60세를 넘긴 여성으로 너

무나 건강하고 평범하며, 사회의 큰 전문성 있는 직책과 내 이웃을 함께 돌보는 작은 삶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 했다.

어디서 왜 왔는가를 물어, 학생들을 데리고 이 지역 주거단지를 둘러보고 있다하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려는데, 이왕 우리 동네 왔으니 우리 집을 구경시켜 주면 어떠냐 하여, 개인 집을 보고 싶었으나 프라이버시 때문에 요청도 못하고 아쉬워하던 터라, 뜻밖의 제안에 감사하며 그 집을 둘러보게 되었다.

조그만 방 2개, 한 개는 침실, 한 개는 서재 겸 다목적실이었고, 조그만 거실 겸 식당엔 아담한 소파세트와 식탁이 있는 정도였다. 부엌 옆 다용도실엔 세탁기/건조기와 빨래걸이대가 있었는데 건조기는 쓰지 않는지, 빨아진 옷들이 가지런히 옷걸이에 걸려 자연 공기에 그대로 말려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주택규모를 넘지 않는 자그마한 주택이었다. 그러나 그 안의 가구

와 생활재는 아름다운 스칸디나비안 예술품들로 그곳을 자랑스럽고 부가가치 높은 공간들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곳에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은 값이 저렴하고 인간적인 느낌의 질 높은 상품을 의미하니,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소유 가능한 생활재들이다. 1명이 자존감과 자부심과 평온함을 느끼며 정주할 수 있는 겸손하고 소박한 최소주거공간이었다.

거실에서 열려진 정원을 바라보니 날 좋을 때 나가 앉을 수 있는 의자 2개와 꽃들이 심어진 아담한 뜰로서 비교적 낮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한 쪽은 길에, 또 한 쪽은 놀이터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면해 있고 그 뒤로 이웃집들이 쉽게 보이고 소통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내 정원만이라기보다 그 지역 정원의 품을 넓혀주고 비록 사적인 공간으로 타인에게 통제된 정원이나, 한 동네의 이어진 정원처럼 보였다. 분에 넘쳐 보이는 공간이 아닌 이상적인 소박한 정원이었다.

집 전체를 둘러보고 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집을 남의 도움없이 정갈하고 단정하게 유지관리까지 하며 그간 가족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국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주저없이 답했다.

“나는 사회를 위해 책임과 소신있게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릴 때 내 자녀는 국가의 좋은 보육시설 지원으로 안심하고 키울 수 있었으며, 내 부모는 지금 좋은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주거시설에서 자식에게서보다 정성스럽게 케어받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고, 내가 늙거나 또 보호가 필요할 때도 나를 이러한 사회지원체제가 책임 져줄 것이니,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듯

전문가로서 활동할 기반을 만들어 주었으니 내 능력을 최고로 개발하여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정부 고위직 여성 이야기이나 보육과 노인 요양 지원정책은 계층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내용이어서,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듯 했다. 덴마크 현장견학에서의 경험은, 과도하게 욕심없는 소박한 주거공간과 이웃에 열려있는 구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한 사람의 삶을 가치 있고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국가 정책의 일면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고령화 사회 미래라 여겨졌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은 어떠한가.

아이가 어릴 땐 보육과 교육문제로 긴장하며 살고, 부모들이 노화되면 지식들에 전가되는 부양과 부담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내가 아프거나 늙으면 제한된 소득으로 외롭고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 불안해한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과 창조적 전문가의 육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영역은 대개 소득 보장, 의료보장, 소외감완화,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끌고가기 위한 방향은 사회적 연대를 통한 개개노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전기반조성,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복지서비스기반,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을 통해 고령 사회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그간 많이 발전해왔으나 여전히 노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가치 있

어 보이게 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또는 초라하게 보이도록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노화라는 기본적 기능퇴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인'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시켜주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Age-Quake을 경험할 것이라 예상되는 한국에서, 즉 절대적 수나 상대적 인구 구성비에서 압도적인 노인 인구가 만연할 미래 사회에서, 우리의 사회 분위기는 어떠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 역량은 얼마나 쇠퇴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에는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 사고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

현재 노인복지정책의 쟁점은 분산적이며, 단편적이며,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성격을 어떻게 탈피하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의 과제는 이를 어떻게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성격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치유보다는 예방개념을 강화시켜

지역사회 자체가 노인복지인프라가 될 수 있게 하여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노인이 시설이 아닌 일상적 생활환경에서 불안감 없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삶의 터전 계획 기술과, 소득구조와 내용이 바뀌는 노인들이 불안하지 않게 자산을 전이활용하는 방안, 노화에 따라 필요해지는 각종 케어서비스와 여가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등 총체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제반 지원 프로그램이 특정 노인 집단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게 할 것이 아니라, 또 행사 위주로 실행되게 할 것이 아니라, 개별 노인이 어떤 정책들의 혜택을 통해 생활안전을 꾀하고 삶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각 개별 노인의 상황에 가상 몰입해 봄으로써 더욱 현명하고 효율적이며 총체적인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문경**